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formation Services of National Museum Libraries

조 찬 식 (Chan-Sik Cho)*

강 성 란 (Sung-Ran Kang)**

초 록

특정분야의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전문도서관에 대한 이용과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보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박물관에 대한 이용과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전문정보서비스 기관인 박물관 자료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국립박물관 자료실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서비스에 대하여 조사·분석하고, 조사가 가능한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보서비스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정보서비스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As the use and expectations toward the specialized library have increase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ervices in special fields has become more emphasized than before. In this context,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museum libraries have been more highlighted as the museum has been more frequently used and become popular. In that, this study builds a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information services of national museum libraries, examines their webpages, and analyzes survey results conducted for national museum libraries. By so doing, this study intends to point out issues based upon the analysis and to suggest some recommendations for more effective information services of national museum libraries.

키워드: 전문도서관, 정보서비스, 박물관, 국립박물관 자료실, 도서관 경영

Specialized Library, Information Service, Museum, Nation Museum Library,
Library Management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cho@dongduk.ac.kr) (교신저자)

**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 석사(lovlybie@naver.com)

논문접수일자 : 2015년 8월 11일 논문심사일자 : 2015년 8월 30일 게재확정일자 : 2015년 9월 9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3): 5-25, 201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5.26.3.005]

1. 서론

도서관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시설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도서관은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며, 모든 주제 분야를 망라하여 정보에 대한 수집·관리·유통을 담당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개인의 정보이용환경 여건과 활용능력이 날로 향상되면서 정보활용 범위의 폭이 교양 수준에서 전문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넓어지고 있으며, 특정분야의 전문정보를 서비스하는 전문도서관에 대한 이용과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문정보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물관 자료실은 박물관의 내부 부대시설로 설치되어 도서관, 자료실, 정보센터 등 여러 가지의 명칭으로 불리며 모기관인 박물관의 기능 조직 중 하나로 존재하며 박물관과 관련된 주제 분야의 전문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박물관 자료실은 박물관 안에서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도서관과 박물관의 중복·확대된 서비스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오늘날 박물관에 대한 이용과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전문정보서비스 기관으로서 박물관 자료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정보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설립주체별로 국립, 공립, 사립, 대학박물관 등으로 구분되는 박물관의 유형 중에서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박물관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는 박물관 자료실의 정보서비스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정보서비스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의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홈페이지 분석을 통하여 정보서비스를 조사하였으며, 또한 조사가 가능한 9개의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정보서비스를 조사·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박물관이란 역사, 고고, 인류,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지질 등의 광범위한 자료에 대해 특정 형태나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현상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유형의 실물자료를 수집·관리·보존·연구·서비스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이보아 2002; 이난영 2008). 그리고 박물관은 소장품의 특성에 따라 그 종류를 고고·미술사, 민속사 등의 인문계 박물관과 자연사, 지질학 등의 자연계 박물관으로 세분할 수 있다.

한편 박물관 자료실이란 박물관 내에 설치되어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박물관의 소장품 및 업무와 관련된 주제 분야의 자료를 주요 장서로 소장하며, 이에 대한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Benedetti

2003). 따라서 박물관 자료실은 박물관 내부에 위치하여 이용자에게 박물관과 관련된 주제 분야의 전문적인 자료를 소장하고 이를 대상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의 전문도서관, 또는 소규모의 전문정보센터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은 1909년 11월 1일 대중에 공개된 제실박물관이다(김인덕 2007). 그러나 우리나라에 박물관 자료실이 처음으로 설립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덕수궁 국립박물관 시절에 관내의 '도서실'에 대하여 언급이 된 부분을 통해 적어도 1961년에는 이미 박물관 내부에 자료실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한국박물관 100년사편찬위원회 2009). 이후 1972년 개편된 박물관 법규를 통해 기존에 있던 보급과의 규모를 확대하여 '전시실, 자료실 및 도서실의 운영관리, 대·내외의 계몽선전과 이에 따르는 도서의 간행 기타 학술 분야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1970년대 이후에는 박물관 자료실 설치에 대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최석영 2008). 이에 따라 1972년 경복궁 안에 새로 지어진 국립중앙박물관은 대대적으로 박물관 자료실을 갖추어 8천여 권에 달하는 소장 도서와 일제시대의 고적조사 사진 원판 등 일만여 점의 고고·미술사 자료들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는 자료실을 갖추었으며,¹⁾ 이후 1974년에 제1차 문예진흥5개년계획이 실시된 이래 전국에 국립박물관이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하면서 새로 개편된 박물관에는 도서자료를 갖춘 자료실이 설치되었다.

이처럼 박물관 자료실은 박물관과 관련된 주제

분야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이미영 2010; Bierbaum 1982). 따라서 박물관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박물관 직원이나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에게 정보요구 해결을 위한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바로 박물관 자료실이다.

또한 통합·복합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세 기관이 담당하는 고유기능을 통합한 '라키비움'의 개념이 주목되고 있다(최영실, 이해영 2012).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박물관 자료실은 박물관 내에서 라키비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이다. 실제로 박물관 자료실의 소장 자료 중에는 자관에서 발간되는 발굴보고서, 연구보고서, 전시도록 등 각종 간행물을 포함하여 이를 관리·제공하고 있다(이미영 2010). 그러므로 박물관 자료실이 가지는 기능은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박물관 아카이브로서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오늘날 정보서비스라는 용어는 이용자의 요구에 대하여 참고사서가 제공하는 인적 서비스를 가리키는 참고봉사의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래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봉사의 전체를 지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박준식 2011). 이에 정보서비스의 개념은 인적인 참고봉사에 제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정보제공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통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도서관으로서 박물관 자료실은 설립 목적에 따라 모기관인 박물관의 소장

1) 국립중앙박물관 25일 개관. 1972. 『동아일보』 8월 23일, 제5면.

품과 업무에 관련된 전문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심도있게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박희숙, 정동열 2008). 그리고 박물관 자료실의 정보서비스 범위는 자료실에 소장된 정보자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제공 행위와 연관되는 인적 자원, 시설자원 등 모든 관련 범위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박물관 자료실의 정보서비스는 그 대상의 범위나 운영방식이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문도서관으로서의 박물관 자료실은 본래의 기능인 모기관의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은 동일하다. 따라서 박물관 자료실은 박물관의 주요 기능인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3. 국립박물관 자료실 현황

박물관은 운영주체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가의 각 행정부처 소속의 기관으로 국가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국립박물관, 각도·시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설립·운영되는 공립박물관,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이 설

립·운영하는 사립박물관, 그리고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설립·운영하는 대학박물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²⁾

국내에는 약 750여개의 박물관이 있으며, 이 중에서 국립박물관은 36개가 운영되고 있다. 국립박물관의 지역별 분포 현황은 서울에 12개, 경상도에 5개, 충청도에 6개, 전라도에 3개, 강원도에 2개, 경기도에 3개, 제주도에 1개, 그리고 광주(1개), 대구(1개), 부산(2개) 등 광역시에 4개의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다.³⁾

대부분의 국립박물관들은 관내 부속시설로 자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박물관의 자료실 운영형태는 박물관을 찾는 일반 이용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운영되는 곳과 박물관의 직원 등 제한된 특정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공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국내 국립박물관의 자료실 설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36개 기관 중 17개 기관으로 약 47%의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10개 기관이 일반 이용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국립박물관 중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온라인상에서도 박물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박물관의 자료실 또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온라인상에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국립박물관의 홈페이지 개설 비율은 전체 36개 기관 중 25개 기관으로 약 69%이며,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홈페이지 구축비율은 전체 36개 기관 중에서 5개 기관으로 조사되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항에 의해 박물관을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으로 구분한다.

3) 『201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전국 박물관 현황과 2014년 8월 기준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제공하는 국내 박물관 현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 외에 추가로 확인된 일부 기관을 포함한 현황이다.

〈표 1〉 전국 국립박물관 자료실 및 홈페이지 운영 현황

(2014년 8월 기준)

지역	국립박물관 기관수	자료실 운영(공개)	박물관 홈페이지 운영	자료실 홈페이지 운영		
				단독 운영	서브메뉴*	소계
서울시	12	4(4)	9	2	2	4
경상도	5	3(1)	4	1	-	1
충청도	6	3(1)	4	1	-	1
전라도	3	2(2)	2	-	1	1
강원도	2	0(0)	1	-	-	-
경기도	3	1(0)	1	-	-	-
제주도	1	1(1)	1	1	-	1
광역시	4	3(1)	3	-	1	1
계	36	17(10)	25	5	4	9

었다. 여기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고 있지만 모기관인 국립박물관의 홈페이지에서 콘텐츠나 서브메뉴의 형태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의 자료실까지 포함하면 전체 36개 기관 중 9개 기관으로 약 25%이다.⁴⁾ 위와 같은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4.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정보서비스 분석

4.1 홈페이지를 통한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정보서비스 분석

4.1.1 조사방법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온라인 정보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박물관 자료실 및 박

물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방법과 콘텐츠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온라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조사는 2014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각 조사대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항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인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의 유형별 현황은 〈표 2〉와 같다.

4.1.2 분석결과

먼저 접속방법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인 9곳의 국립박물관 자료실은 대부분 모기관인 박물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링크로 연결된 아이콘을 클릭하여 접속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 박물관 홈페이지의 링크를 통한 방법 외에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자료실을 검색하여 바로 접속이 가

4) 현재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한함(홈페이지의 주소가 존재하더라도 주소변경, 폐쇄, 운영 중단 등 현재 정상적인 접속이 불가능 경우는 제외하였다). '모기관인 박물관의 홈페이지에서 콘텐츠나 서브 메뉴의 형태로 소장 자료 검색 등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범위에서 자관의 발간물 검색만을 제공하는 기관은 제외하였다.

〈표 2〉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홈페이지 콘텐츠 유형별 현황

(2014년 10월 기준)

기관명	자료실 소개	소장자료 검색	알림 게시판	희망도서 신청	자유 게시판	이용자 개별서비스	비고
A박물관 자료실	○	○	○	X	○	○	
B박물관 자료실	○	○	○	X	X	X	
C박물관 자료실	○	○	○	X	○	○	
D박물관 자료실	○	○	○	○	○	X	
E박물관 자료실	○	○	○	○	X	X	
F박물관 자료실	○	○	X	X	X	X	서브메뉴
G박물관 자료실	○	○	X	X	X	X	서브메뉴
H박물관 자료실	○	○	X	○	X	X	서브메뉴
I박물관 자료실	○	○	X	X	X	X	서브메뉴
계	9	9	5	3	3	2	

능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홈페이지 접속방법은 박물관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위치한 박물관 자료실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바로 접속이 가능한 1단계 접속과 박물관 홈페이지의 메인 콘텐츠 메뉴를 클릭하여 서브메뉴 및 더 세분된 하위메뉴로 존재하는 박물관 자료실 아이콘을 다시 클릭하여 접속하는 2단계 이상의 접속 방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현재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자료실'이라는 명칭은 자료실의 소장 자료에 대한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자료실'로서의 개념 외에도 박물관의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와 관련된 자료를 게시하는 게시판형태의 콘텐츠인 '자료실'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용자들은 자료실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 제공된 각 콘텐츠들을 클릭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마이페이지 및 마이라이브러리와 같은

이용자 개별서비스 종류의 기능은 별도의 개인 정보관리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단순 검색 및 정보공지와 같은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국회전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과의 협약을 통해 해당 홈페이지를 링크로 연결하여 관련 학술자료의 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협약기관의 원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원문제공 기관의 회원가입을 통한 로그인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조사된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온라인 콘텐츠를 살펴보면 주로 자료실 소개, 소장 자료 검색, 알림게시판, 희망도서신청, 자유게시판, 이용자 개별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박물관 자료실 홈페이지의 메인 콘텐츠는 평균 5종류 내외로 제공되고 있으며,

각 메인 콘텐츠별 하위메뉴를 구성하고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서비스 제공 유형은 소장 자료 검색서비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게시판 형식의 공간에서 운영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들은 대부분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희망도서 신청 등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제공하지 않거나 해당 서비스를 내부 직원 등 제한된 이용자에게만 제공하는 기관도 있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이용자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유형의 서비스는 대부분 박물관 직원 등 일부 이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료실의 홈페이지에 콘텐츠는 구성하였지만, 실제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콘텐츠들도 존재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편 현재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유형은 '자료실 소개'와 '소장 자료 검색' 유형의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은 각 기관의 자료실에 대한 개요와 이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자료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3가지 내외의 방법으로 검색을 제공하는 기능의 서비스이다.

또한 국립박물관 자료실 홈페이지의 구축 유형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기관은 모기관인 박물관 홈페이지의 서브메뉴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비해 콘텐츠의 종류와 서비스의 범위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구현하는 공간적 기반에 따라 정보서비스의 제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2 설문조사를 통한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정보서비스

4.2.1 조사방법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일반적인 현황과 정보서비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주간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대상 선정은 전국의 17개 국립박물관 자료실을 대상으로 사전에 전화문의를 통하여 양해를 구하고, 참여를 수락한 9개의 자료실에 한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의 대상자는 박물관의 업무분장에서 박물관 자료실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실질적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문항의 개발은 관련된 연구와 평가지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2012)에서 실시한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 중 전문도서관 통계 항목과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2013)의 2012년 전국 도서관운영평가 결과보고서의 영역별 분석 평가지표 항목, 그리고 박희숙, 정동열(2008)의 전문도서관 평가지표 항목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국립박물관 자료실 운영의 일반 현황, 정보서비스의 현황, 그리고 기타 의견 수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구성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내용구성

설문유형	설문구성	문항 수	참고자료*
일반 현황	①인력 현황	3문항	①
	②이용 현황 및 업무비중	3문항	②
	③소장 자료 현황	5문항	①,②
	④자체개발 서비스 현황	4문항	②,③
정보서비스 현황	⑤참고정보서비스 현황	5문항	②,③
	⑥상호협력 현황	4문항	①,②
	⑦온라인 정보서비스 운영 및 이용 현황	2문항	①
	⑧온라인 정보서비스 콘텐츠 및 이용 현황	2문항	①
	⑨온라인 참고서비스 현황	6문항	①
	⑩홈페이지 미구축 원인 및 향후 제공 가능성	2문항	
⑪기타 의견		1문항	
총 문항 수		37문항	

*문화체육관광부(2012): 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외(2013): ②, 박희숙, 정동열(2008): ③

4.2.2 분석결과

1) 인력 현황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인력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국립박물관 자료실 인력 현황

자료실 근무인력 수	1명	7명(77.8%)
	2명	2명(22.2%)
계		9명(100%)
직원의 직렬 (복수응답)	사서직	6명(54.5%)
	행정직	4명(36.4%)
	기타	1명(9.1%)
계		11명(100%)
직원의 전공 (복수응답)	문헌정보학	6명(50.0%)
	역사학관련	1명(8.3%)
	컴퓨터(전산)	3명(25.0%)
	기타영역	2명(16.7%)
계		12명(100%)

위의 〈표 4〉에 나타나듯이 국립박물관 자료

실의 운영 인력은 현재 대부분이 1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립박물관 자료실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2007년 문화관광부에서 발행된 『도서관 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난 기준인 '봉사대상이 100 이하인 전문도서관'의 기본 사서직원 수인 2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⁵⁾

또한 조사된 국립박물관 자료실 직원은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서직 직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직 등 타 직렬이나 기타(영어영문학 등) 전공자들의 비율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온전히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용 현황 및 업무비중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이용현황 및 업무비중

5) 『도서관 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7. 12. p. 21.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국립박물관 자료실 이용 현황 및 주요 업무

주 이용자 (복수응답)	박물관 관람객	2명(20.0%)
	박물관 직원	8명(80.0%)
계		10명(100%)
월 평균 자료실 방문자 수	100명 미만	6명(66.7%)
	100명 이상~200명 미만	1명(11.1%)
	200명 이상~500명 미만	1명(11.1%)
	500명 이상	1명(11.1%)
계		9명(100%)
주요 업무 (복수응답)	자료실 이용안내	2명(18.2%)
	장서구입 및 관리	8명(72.7%)
	참고정보서비스	1명(9.1%)
계		11명(100%)*

위의 <표 5>에서와 같이 국립박물관의 자료실을 방문하는 주 이용자 중 박물관 직원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월 평균 방문자 수는 100명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하루에 평균 5명 미만의 이용자가 자료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이용자 수는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운영에 있어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조사에서는 '장서의 구입 및 관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한편 전문도서관으로서 중요하게 기능되어야 할 업무인 참고정보서비스에 대한 비중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국립박물관 자료실이 전문도서관으로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서비스의 전문성이 제한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소장 자료 현황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소장 자료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국립박물관 자료실 소장 자료 순위 현황 (복수응답)

순위	유형별 구성비	주제별 구성비	유료 DB 구독비
1	조사/연구보고서	역사	역사
2	단행본	사회과학	사회과학
3	정기간행물	예술	예술
4	멀티미디어 자료	총류	기술과학
5	전자자료	문학	총류
6	도록 등 기타자료	기술과학	문학
7		순수과학	순수과학
8		철학	종교
9		종교	철학
10		언어	언어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소장 자료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위의 <표 6>과 같이 자료의 유형은 조사/연구보고서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조사/연구보고서는 대개 자관 및 유관기관에서 간행되고 미판매되는 자료들로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료이다. 이는 이용자에게 국립박물관 자료실을 방문하는 동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모기관인 박물관에서 생산되는 간행물을 관리·제공함으로써 국립박물관 자료실이 아카이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주요 자원 요소가 될 수 있다.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소장 자료의 주제분야를 살펴보면, 역사주제에 대한 자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과학, 예술 등의 주제분야에 대한 자료가 많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유료DB의 구독여부를 조사한 결과도 소장 자료의 주제별 구성비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주제분야는 박물관의 기능과 목적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로서 박물관 자료실이 관련 주제분야의 전문도서관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유료DB의 구독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국립박물관 자료실 유료DB 구독 현황

구독여부	하고 있다	5명(55.6%)
	하지 않고 있다	4명(44.4%)
계		9명(100%)
미구독 원인	예산 부족	3명(75.0%)
	기타	1명(25.0%)
계		4명(100%)

위의 <표 7>에 나타나듯이 응답기관의 절반 이상이 유료DB를 구독하고 있으며, 이는 자료실이 이용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장 자료를 확장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반면 유료DB를 구독하지 않는 자료실의 미구독 원인에 대한 이유로는 예산부족이 가장 높은 답변을 보였다. 그리고 기타 답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기관이 최근에 신설된 자료실이기 때문에 아직 유료DB를 구독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음 해부터 구독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유료DB 미구독의 원인을

살펴보면, 구독의 필요성 여부보다 재정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자체개발 서비스 현황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자체개발 서비스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국립박물관 자료실 자체개발 서비스 현황

자체 발간 간행물 여부	있음	2명(22.2%)
	없음	7명(77.8%)
계		9명(100%)
자체 발간 간행물 종류	소식지	1명(50.0%)
	기타	1명(50.0%)
계		2명(100%)
자체 구축 DB현황	있음	0명(0%)
	없음	9명(100%)
계		9명(100%)

위의 <표 8>과 같이 국립박물관 자료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DB와 간행물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극히 일부 기관에서 박물관 자료실의 소식지와 박물관의 전시도록을 발행, 제공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기관 모두 자체구축 DB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관의 특성과 이용자의 정보요구 특성에 맞추어 박물관 자료실이 모기관인 국립박물관 내에서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5) 참고정보서비스 현황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참고정보서비스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참고정보서비스 현황

참고정보서비스 제공 여부	그렇다	2명(22.2%)
	아니다	7명(77.8%)
계		9명(100%)
참고정보서비스 종류	서지정보 제공	2명(100%)
월 평균 참고정보서비스 요청건수		20건
월 평균 참고정보서비스 처리건수		20건
참고정보서비스 미제공 원인 (복수응답)	이용률 저조	2명(20.0%)
	전문인력 부족	5명(50.0%)
	처리시간 부족	1명(10.0%)
	예산 부족	1명(10.0%)
기타		1명(10.0%)
계		10명(100%)

국립박물관 자료실에서 제공되고 있는 참고정보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위 〈표 9〉와 같이 살펴보면, 조사대상 기관 중 참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2곳(22.2%)으로 참고정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에 비하여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기관에서는 월 평균 20건의 참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공히 서지정보제공서비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매우 기본적인 정보서비스로 아직까지 국립박물관 자료실에서의 참고정보서비스의 제공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공되는 참고정보서비스의 신청방법은 안내데스크 및 전화·팩스를 이용한 방법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이용자가 자료실의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맞추어 신청해야 하는 방식으로 그에 따른 시간적인 제약이 발생한다. 따라서 향후 참고정보서비스의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참고정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기관들은 그 이유를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답변하였다. 이는 이용자의 다양한 참고정보서비스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서비스 또는 박물관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배경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필요하며, 1인 운영체제의 자료실환경에서는 효율적인 참고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6) 상호협력 현황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상호협력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상호협력 현황

상호협력 수행 여부	그렇다	3명(33.3%)
	아니다	6명(66.7%)
계		9명(100%)
상호협력을 통한 정보서비스 (복수응답)	소장 자료 목록 검색	1명(16.7%)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3명(50.0%)
	DB 공유	1명(16.7%)
	참고서비스	1명(16.7%)
계		6명(100.1%)*
월 평균 상호협력 서비스 이용건수		16건
상호협력 서비스 미제공 원인 (복수응답)	공유할 소장 자료의 부족	1명(14.3%)
	담당인력 부족	2명(28.6%)
	상호협력에 대한 부담	2명(28.6%)
	필요성 미인식	1명(14.3%)
기타		1명(14.3%)
계		7명(100.1%)*

*반올림에 따른 오차임

위의 〈표 10〉에서와 같이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상호협력서비스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유관기관과 상호협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3곳으로, 제공하지 않는 기관에 비하여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립박물관 자료실은 유관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정보서비스보다는 자관의 소장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적 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인적, 재정적으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실정에서 정보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정보원 공유 및 정보서비스의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호협력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는 비중이 가장 높게 조사된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서비스 외에 유관기관의 소장 자료 목록 검색, DB 공동 이용, 상호협력 기관의 참고서비스 이용 등 전반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박물관 자료실에서 나타나는 인력 부족의 한계를 감안하면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서비스는 장서부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상호협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기관은 그 이유를 담당인력 부족과 상호협력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상호협력이라는 특성상 외부 기관과 대외협력 체결에 대한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전 조사와 준비 과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상호협력으로 인한 자료 관리의 어려움 등이 1인 운영체제의 상황에서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7) 온라인 정보서비스 운영 및 이용 현황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온라인 정보서비스 운

영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온라인 정보서비스 운영 및 이용 현황

온라인 정보서비스 제공 여부	그렇다	5명(55.6%)
	아니다	4명(44.4%)
계		9명(100%)
월평균 홈페이지 방문자 수	300명 미만	3명(60.0%)
	300명 이상~1,500명 미만	1명(20.0%)
	1,500명 이상	1명(20.0%)
계		5명(100%)

국립박물관 자료실에서는 물리적인 공간 이외에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에서도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료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모기관인 박물관의 홈페이지의 하위메뉴로 구성하는 등 온라인 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공간과 관련 시스템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위의 <표 11>과 같이 조사된 국립박물관 자료실 중 5곳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월 평균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300명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하루 약 10명 미만의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온라인상의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 온라인 정보서비스 콘텐츠 및 이용 현황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온라인 정보서비스 콘

텐츠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온라인 정보서비스 콘텐츠 및 이용 현황

온라인 정보서비스 종류 (복수응답)	소장자료 검색	5명(23.8%)
	신착자료 안내	4명(19.0%)
	희망도서 신청	2명(9.5%)
	자관 간행물의 원문보기	2명(9.5%)
	SDI/RSS 서비스	1명(4.8%)
	자료예약	1명(4.8%)
	계서관 질의 응답	1명(4.8%)
	공지사항 (일정 및 행사안내)	4명(19.0%)
	이용자 개별 기능 제공	1명(4.8%)
계	21명(100%)*	
온라인 정보서비스 이용률 상위 5순위 (복수응답)	소장자료 검색	1순위
	신착자료 안내	2순위
	자관 간행물의 원문보기	3순위
	공지사항 (일정 및 행사안내)	4순위
	희망도서 신청	5순위

위의 <표 12>에 나타나듯이 국립박물관 자료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정보서비스의 콘텐츠는 소장 자료 검색, 신착자료 안내, 공지사항 등 주로 정보안내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주로 소장 자료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정보에 대한 서비스로 온라인 정보서비스 역시 면대면 정보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수준의 서비스 위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제공되는 온라인 정보서비스 중에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서비스는 소장 자료 검색, 신착 자료 안내, 자관 간행물의 원문보기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자관 간

행물의 원문보기 서비스는 단순한 소장 자료 안내 위주의 기능에서 더 발전된 단계의 정보서비스로 향후 이용률 향상과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서 지향해야 할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9) 온라인 참고서비스 현황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온라인 참고서비스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온라인 참고서비스 현황

온라인 참고서비스 제공 여부	한다	1명(20.0%)
	하지 않는다	4명(80.0%)
계		5명(100%)
온라인 참고서비스 미제공 원인 (복수응답)	이용률 저조	1명(20.0%)
	전문인력 부족	1명(20.0%)
	운영인력 부족	3명(60.0%)
계		5명(100%)
향후 제공 계획	없다	4명(100%)

위의 <표 13>과 같이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의 국립박물관 자료실 중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참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1곳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온라인 참고서비스 미제공에 대한 원인으로는 참고서비스의 접수 및 처리 등 관련 사항을 관리할 운영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이용률 저조와 참고서비스를 수행할 전문인력의 부족도 온라인 참고서비스의 미제공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주목할 것은 현재 온라인 참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향후 온라인 참고서비스 제공 계획에 관한 결

과는 대상 기관 모두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국립박물관 자료실에서 온라인 참고서비스를 통한 전문정보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참고서비스 미제공의 원인으로 파악된 문제들로 인하여 효율적인 온라인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기에는 많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운영자로부터 온라인 참고서비스 제공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0) 홈페이지 미구축 원인 및 향후 제공 가능성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홈페이지 미구축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국립박물관 자료실 홈페이지 미구축 원인 및 계획

국립박물관 자료실 홈페이지 미구축 원인 (복수응답)	운영인력 부족	4명(57.1%)
	예산부족	2명(28.6%)
	콘텐츠 개발의 부담	1명(14.3%)
계		7명(100%)
국립박물관 자료실 홈페이지 구축 계획	있다	2명(50.0%)
	없다	2명(50.0%)
	계	4명(100%)

온라인상에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기관을 통해 파악한 온라인 정보서비스의 미제공 원인으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정보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할 운영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온라인 정보서비스에 제

반되는 비용에 대한 예산 부족과 정보서비스의 도구인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에 대한 부담감 또한 미제공의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적인 부분보다 운영 자체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인력 부족의 문제는 현재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정보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의 전반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정보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인력의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향후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기관과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답변한 기관의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국립박물관 자료실 홈페이지의 구축은 온라인 참고서비스의 제공보다 포괄적인 서비스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온라인 참고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홈페이지 구축은 방문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제한적인 정보서비스에서 진일보한 효율적인 서비스의 방법이 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11) 기타 의견

운영자로서 느끼는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한계나 문제점 등에 대한 파악과 향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료실에 대한 홍보 부족, 소장 자료 부족, 예산 부족, 전문인력 부족, 공간협소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박물관 이외의 주제 분야에 대한 자료 보강의 필요성, 자료실 홍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 국립

박물관 자료실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전시와 관련한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한계에 대한 보완 및 발전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폭넓게 인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3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

4.3.1 현황기반 문제점

지금까지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온라인 정보서비스 현황과 운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 분석을 통해 나타난 국립박물관 자료실 정보서비스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대상의 문제이다.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정보서비스 현황 조사결과 국립박물관 자료실은 서비스의 대상이나 이용의 범위가 박물관의 내부 직원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운영 주체는 국가가 설립한 기관들로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문화·교육·여가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다. 따라서 국립박물관의 부대시설로 소속된 국립박물관 자료실은 모기관의 특성에 따라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황 분석을 통해 나타난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서비스는 박물관을 찾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박물관의 내부 직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외부 이용자에 대한 자료실의 정보서비스 제공 범위에 관한 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박물관의 조직 내에서 자료실의 역

할과 운영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립박물관 자료실이 활성화되고 전문도서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이용자를 확보하고, 운영기준을 이용자 모두에게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내용의 문제이다. 국립박물관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는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소장 자료의 검색과 단순 열람 등 기초적인 수준의 서비스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참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조사대상 전체 9개 기관 중에서 2개 기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정보서비스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도 전체 국립박물관의 자료실 17개 기관 중에서 9개 기관에 불과하며, 제공되는 온라인 정보서비스의 내용 또한 대부분이 소장 자료의 검색, 단순 열람, 공지사항 등으로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제공되는 콘텐츠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단순한 기능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국립박물관의 자료실에서는 타 기관과 상호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장 자료만으로는 서비스의 양적, 질적인 수준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의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정보서비스를 전문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전문정보서비스로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다. 이는 과학기술분야, 의학분야, 법학분야 등 타 주

제분야 전문도서관의 정보서비스의 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그 수준이 매우 기초적이며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원만, 이지연 2010; 조찬식 1995; 조찬식, 한혜영 2005). 이에 전문정보서비스가 활성화된 타 분야의 전문도서관과 유관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다양하고 향상된 수준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별 정보이용 행태 및 정보요구 등을 분석하여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이용자별 특징을 파악하고, 각 이용자 유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자료실 운영상의 문제이다. 현재 국립박물관 자료실에서는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하여 전문정보서비스의 구현과 개발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자료실 운영상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호협력 미구축, 참고서비스 미제공 등과 관련한 주요 원인 등으로 조사·분석되었다.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는 국립박물관 자료실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도서관과 정보서비스 기관에서 나타나는 운영상의 근본적인 문제이며, 국립박물관 자료실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 요인으로 인하여 운영상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⁶⁾ 이에 관해 이미영(2010)은 당시 전체 전문도서관의 연간 평균 예산이 8,8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박물관 자료실은 연간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의 기관이 많아 예산상의 문제가 박물관 자료실의 정보서비스 활성화에 있어 저해요소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미 지

적한 바 있다. 또 박물관 자료실의 운영인력은 대부분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업무의 과중과 인력 부족의 문제로 연결되어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 자료실이 박물관의 정보서비스 기능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향후 전문정보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도 좀 더 확대되고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4.3.2 활성화 방안

전술한 현황기반 문제점을 바탕으로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이용자층의 확보이다. 국립박물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는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이용자에서부터 관련 분야의 전공자와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그 이용자의 층은 매우 다양하다. 한편 국립박물관을 찾는 모든 이용자는 그 동기가 어떠한지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이용자가 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립박물관 자료실이 전문도서관으로서 제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박물관을 찾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이용자층을 확보하고, 이들의 정보서비스 이용행태와 특성 등을 파악하여 각 이용자층에 맞는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외부 이용자들에게 공개로 운영하거나 비공개로 운영하는 등 각 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겨진 운영방침을 의무적으로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

6) 2007년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의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문도서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전문)도서관 미설치 이유에서 예산, 시설상의 문제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전문도서관 통계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문화관광부, 2007.12.13. pp. 129-135 참고).

는 운영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자별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이용자 조사를 시행하여 이용자별 데이터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분석과 연구의 과정을 통해 이용자 개발을 위한 노력과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동반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서비스 확대 및 강화이다. 현재 국립박물관 자료실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서비스는 그 유형과 수준이 매우 기본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전문정보서비스로 보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며,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자료실의 정보서비스 확대·강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전문성 강화를 들 수 있다. 전문도서관은 일반 도서관과는 달리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서비스가 요구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주제전문사서를 통한 참고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박물관과 관련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주제전문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실질적인 전문정보서비스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주제전문사서는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인 고고학, 미술사학, 문화재학, 예술학 등을 전공하거나, 기타 주제 분야의 박물관에서는 자관의 주제 분야에 맞는 학문을 전공한 인력을 의무적으로 1인 이상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과 예산이나 조직의 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신규인력의 채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기존의 사서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학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수준 높은 주제전문서비스의 수행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여 정보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

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국립박물관 자료실은 모기관의 주요 기능과 업무에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박물관의 특별 전시나 주요 상설 전시와 관련하여 소장 자료를 대상으로 도서전 등 연관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또 박물관의 특성상 조사·연구 사업이 빈번하게 수행되는 것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된 정보원을 제공, 해외 자료에 대한 번역서비스, 관련 학계와 해당 주제분야의 소식이나 연구 정보에 대한 최신 동향분석 등 국립박물관 자료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상호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국립박물관 자료실에서는 상호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호협력은 한정된 예산과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국립박물관 자료실은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상호협력 서비스의 유형, 운영 방침, 서비스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효율적인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통합관리체제의 구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립박물관 자료실 간에 소장 자료와 정보서비스에 대한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각 기관별 자료와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국립박물관 간 통합관리체제에 의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이용자들은 전국 각 지

역에 분포한 박물관을 직접 찾지 않고도 한 곳에서 연결된 서비스를 통해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여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협의체 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국립박물관 자료실 간의 정보 서비스를 관리·감독하게 하여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정보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며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 모든 기관의 소장 자료에 대한 통합목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한다면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이용률 증가와 더불어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을 도모하고 중복자료를 예방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서비스 제공이다. 국립박물관은 고대의 주요 문화권별로 전국의 각 지역에 위치하거나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과 깊은 연관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즉 국립박물관 자료실은 기관별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국립박물관 자료실은 모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지역의 문화교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박물관 자료실의 특성화된 서비스에도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의 방법으로는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향토문화사를 주제로 하여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또 회원 가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지역주민에게 자료대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의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수업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실 내부에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는 등 지역의 문화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서비스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장치의 마련이다. 국립박물관 자료실의 운영과 정보서비스에서 나타나는 제약 및 저해요인으로 인력과 예산 부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박물관 자료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기관인 박물관 차원의 해결방안과 자료실 자체적인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기관인 박물관은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자료실의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자료실은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충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체 방안 마련 등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물관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활용함으로써 인력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자료실 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기부프로그램 개발, 차별화된 고급 유료서비스의 시행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실제로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자료실의 유료서비스 등은 이미 유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각 국립박물관의 자료실은 자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5. 결 론

국립박물관 자료실이 관련 분야의 전문도서관으로서 제기능을 다하고 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기관인 박물관 내부에서부터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확대가 절실하다. 그리고 관련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이론적인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국립박물관 자료실은 서비스의 주체로서 정보서비스의 활성화와 위상 정립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박물관의 자료실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설립주체별로 구별되는 박물관의 관종별 운영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약조건이 크다고 판단되었으며, 모든 관종의 박물관을 대상으로 할 경우 박물관의 자료실 설치율 또한 극도로 저조하게 나타나게 되어 연구의 진행에 제한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박물관의 기관수에 비하여 조사대상 기관이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국내의 모든 관종의 박물관 자료실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이 외의 국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 설립주체별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본 연구와 비교되고, 또한 다른 관종의 정보서비스와의 관련 연구가 이어진다면 더욱 다양하고 의미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원만, 이지연. 2010.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1): 165-183.
- 김인덕. 2007. 『식민지시대 근대 공간 국립박물관』. 서울: 국학자료원.
-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2년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
- 박준식. 2011. 『정보서비스론』.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박희숙, 정동열. 2008. 전문도서관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3): 11-43.
- 이난영. 2008. 『박물관학: 박물관 관리 운영의 이론과 실무』. 서울: 삼화출판사.
- 이미영. 2010. 박물관 내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전문도서관으로서의 발전전략. 『KSLA bulletin』, 2: 28-42.
- 이보아. 2002. 『박물관학 개론』. 서울: 김영사.
- 조찬식. 1995.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체제 구조분석 및 개선방향. 『정보관리학회지』, 12(2): 103-126.
- 조찬식, 한혜영. 2005. 서울시 의학도서관의 웹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1): 133-151.

- 최석영. 2008. 『한국 박물관 100년 역사 진단&대안』. 서울: 민속원.
- 최영실, 이해영. 2012.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융합한 라키비움의 기능 계획.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457-477.
- 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9. 『한국 박물관 100년사』. 서울: 사회평론.
- Benedetti, J. M. 2003. "Managing the Small Art Museum Library."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39(1): 23-44.
- Bierbaum, E. G. 1982. *The Museum Library: It's Relationship To Educational Programming in Science or Natural History Museums*. Ph.D. diss.,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Chan-Sik. 1995. "A Structural Analysis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STI)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2(2): 103-126.
- Cho, Chan-Sik and Hye Young Han. 2005. "A Study on the Information Service in Webpages of the Medica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6(1): 133-151.
- Choi, Seok-Yeong. 2008. *Korean museums' 100 years: diagnosis & alternatives*. Seoul: Minsokwon Pub.
- Choi, Young-Sil and Hae young Rieh. 2012. "A Study on the Spatial Function in Larchiveum based on the Multi-Function of Archives, Library and Museum."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457-477.
- Compilation Committee of the 100 Year History of Korean Museums. 2009. *The 100 Year History of Korean Museums*. Seoul: Sahoepyungnon.
- Kim, In-Dok. 2007. *National Museum during Colonial Period*. Seoul: Kookhak Pub.
- Kim, Won-Man and Jee Yeon Lee. 2010.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Law Schoo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1): 165-183.
- Lee, Bo-A. 2002. *Introduction to Museum Studies*. Seoul: Gimmyoungsa.
- Lee, Mee-Young. 2010. "Analysis on the Library Management in Museum and Development Strategy toward Special Library." *KSLA bulletin*, 2: 28-42.
- Lee, Nan-Young. 2008. *Museum Studies*. Seoul: Samwha.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2012 Library Statistics*.
- Park, Hee-Sook and Dong Youl Jeong. 2008. "A Study on the Developing of Evaluation Indicators of Specia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3): 11-43.
- Park, Joon-Sik. 2011. *Information Services*. Daegu: Keimyung University Press.
- Presidentia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of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Report of 2012 Korean Libraries' Management Evaluation*.